

발표분과 9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효과

천영민* · 정승철**

◆◆◆ 요약 ◆◆◆

대학교에서는 최근 청년 취업난으로 인해 소속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에서 제공되는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 파악과 더불어 각 참여자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의 가장 최근 공개된 자료(2014GOMS1)를 활용하였다. 기술통계분석과 로짓분석(logit analysis)을 실시하여 참여여부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진로 관련 프로그램 중에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진로 및 취업 관련 교과목이다. 그러나 다른 프로그램의 참여 비율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도가 지날수록 증가추세였다가 최근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학 재학 당시에 학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가 미참여자에 비해 대출경험이 좀 더 많았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 취업준비에 몰두하기 때문에 파악된다. 또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가 졸업 이후 일자리를 갖는 데 있어 재학 시절에 더 많은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났는데,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참여자는 76.9%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미참여자와의 간격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로짓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에 따르면, 진로 및 취업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졸자가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진로 관련 상담프로그램 경험이 있거나 취업캠프에 참여한 대졸자가 취업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런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학년에는 진로 관련 교과목을 통해 취업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지적호기심을 채우고 본인의 경력을 설계해 갈 수 있는 로드맵을 그려보는 것은 중요하다. 대학에서도 관련 교과목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커리큘럼에 포함하되, 단순한 교양과목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전공에 맞춘 세부적인 과목 운영이 가능한 형태의 교과목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졸업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학생들은 시급한 취업 기술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를 위한 취업컨설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편 취업박람회나 채용 설명회가 학생들에게 효과를 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주요 대학이나 지방 거점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주요 용어 : 대졸자, 진로프로그램, 코호트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zzari90@keis.or.kr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parisjung@gamil.com

I 서론

청년 취업난 심화로 인한 청년층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수많은 신조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신조어는 취업조차 하기 힘든 상황을 표현(예: 이태백, 문송합니다, 자소설, 장미족)하거나, 취업은 했지만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구직상태로 돌아가는 상황을 표현(이케아세대, 열정페이, 돌취생)하는 것에서 나아가 본인의 힘든 상황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거나 사회에 대한 비판적 표현(청년실신, 잉글리시 푸어, 삼포세대, N포세대, 헬조선, 수저계급론, 켄거루족, 빨대족)으로 확대되고 있다. 취업 상황이 단시간내에 호전되기 어려우리라는 예측은 인구구조 변화, 고학력인구 증가, 경기 상황, 60+정년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등과 맞물려 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난 정부 이후 지속적인 청년취업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시적 미봉책을 벗어나는 큰 그림에서의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센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정부의 대통령 첫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로, 청년 취업난 타개 대책이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층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최근 들어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이 개인의 노력보다는 타고난 배경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이른바 금수저 은수저 논란이 뜨겁다. 여기에는 교육을 통한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활발했던 우리사회에서 상향 이동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체념이 저변에 깔려 있다(박가열, 천영민, 2016). 이런 경제적 지위 세습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역시 커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현실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도우려는 정부와 대학 당국의 노력 역시 커질 수 밖에 없다. 대학이 학문을 습득하는 장에서 취업을 위한 훈련기관으로 변질된다는 비판 속에서 구성원들간의 책임과 비판의 경계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 고용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대학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각종 진로지도 프로그램 참여가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갖는데 미치는 영향을 주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어떤 형태의 진로지도가 대졸자를 위해 필요한지를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Ⅲ. 장에서는 진로지도 프로그램 이수 현황과 이에 따른 대졸자 기초통계를 분석한다. Ⅳ. 장에서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이용해 취업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한 모형을 분석한다. 끝으로, Ⅴ. 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논의한다.

II 자료 처리 및 선행 연구 검토

1.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¹⁾) 자료이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이하 GOMS)는 대학졸업자만을 대상으로 특화된 조사이다. 이 조사의 목적은 최근 고학력화로 인한 청년실업문제가 심화되면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학교(전공)별 이행현황 분석과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대학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직장)이동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DB로 구축함으로써, 교육-노동시장간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정보를 제공하고 인력수급불일치를 완화시키는 것이며, 개별 학교 및 전공별로 세부 노동시장 성과를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제공하여 대학 또는 전공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진로상담과 진학상담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공 및 직업불일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천영민 외; 2008).

GOMS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6년에 처음 실시한 조사로서, 최초 기획단계에서는 약 8년 이상의 웨이브를 추적하는 장기추적 형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2회까지만 추적하는 단기패널조사 형태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조사설계가 횡단면조사로 변경되어 운영하고 있다(신종각 외; 2015).²⁾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조사된 응답 대상 코호트는 2005년, 2007년~2014년 졸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졸업자부터 2014년 졸업자까지를 대상으로 각각 1차년도에 실시한 조사 결과만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2005년 졸업자를 제외한 이유는 최초 조사설계 자체가 장기추적을 염두에 둔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내용이 약간 다르고, 표본 규모도 전체 모집단의 5% 이상으로 다른 졸업자 코호트와 상이하기 때문이다(김형래, 천영민, 2016). 또한 2005년 졸업자의 조사기준은 응답자의 실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조사가 된 반면에 2007년 졸업자부터는 조사시점을 9월 1일³⁾로 고정하고 응답을 받고 있어 조사시점의 차이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추적조사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2011년 졸업생부터는 추적조사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관심대상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대학을 졸업한 약 16만명이며, 분석의 편의를 위해 각 1차년도 자료를 병합하여 종형(long type)으로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각년도 졸업자의 대학생활과 다양한 진로지도 경험 등의 변화와 추이, 그리고 일자리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았다.

1) GOMS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6년에 처음 실시한 조사로서, 최초 기획단계에서는 약 8년 이상의 웨이브를 추적하는 장기추적 형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2회까지만 추적하는 단기패널조사 형태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조사 설계가 횡단면조사로 변경되어 운영하고 있다.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조사 사이트(<http://survey.keis.or.kr>)를 참고

3) 실제로는 경제활동 상태 등 모든 문항의 응답기준 시점을 9월 1일 직전 일주일 동안으로 제한

그림 1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조사설계 및 실시현황

(단위 : 천명)

졸업년도 \ 조사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표본수
2005년	●	◎	◎								26,544
2006년											
2007년			●	○	◎						18,050
2008년				●	○	◎					18,066
2009년					●	○	◎				18,011
2010년						●	○	◎			18,078
2011년							●				18,299
2012년								●			18,250
2013년									●		18,160
2014년										●	18,057
●	1차조사		◎	추적조사			○		패널유지		

Source : 2014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2016, 최기성 외)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처리 방식에서 연령 35세 이상은 청년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제외하였는데, 이는 천영민 등(2012), 박가열 등(2015), 김형래, 천영민(2016)의 연구와 같이 35세 이상인 대졸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졸 학력을 이용한 취업이 아닌 이미 취업자 신분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청년층의 일반적인 학력 취득 및 경력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취업경로와 다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학교 유형에서 ‘교육대’는 졸업 후 노동시장 입직과정이 다른 대학과 다르므로 박가열 등(2008, 2015)의 연구처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진로지도 프로그램 참여 등과 같은 기술통계분석에서는 포함하였고, 모형분석에서만 ‘교육대’를 제외하였다.

〈표 1〉은 각 졸업연도(코호트)별 학교유형에 따른 성별과 전공계열에 대한 모집단 분포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이는 교육부 행정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GOMS 자료에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였다. 성비를 보면, 2008년까지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했으나, 2009년 이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2%p 이상 많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공학계열은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인한 감소 이후 유지세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계열은 변화가 더딘 편이지만 4년제는 2011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계열은 2~3년제와 4년제 모두 증가하였고, 예체능계열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계열은 2~3년제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인문계열은 2~3년제와 4년제 모두 감소세가 확인된다. 자연계열은 큰 변화가 없는 편으로 나타났다.

표 1 코호트 및 유형별 모집단 구성 현황

(단위 : 명, %)

코호트	학교유형	성별		학과 대분류(명)							전체
		남성	여성	공학	교육	사회	예체능	의약	인문	자연	
2007	2~3년제	103,050	111,991	59,659	10,581	58,114	36,696	23,878	10,396	15,718	215,042
		47.9%	52.1%	27.7%	4.9%	27.0%	17.1%	11.1%	4.8%	7.3%	100.0%
	4년제	145,117	132,741	69,178	16,361	75,615	29,293	12,813	39,098	35,500	277,858
		52.2%	47.8%	24.9%	5.9%	27.2%	10.5%	4.6%	14.1%	12.8%	100.0%
2008	2~3년제	248,167	244,732	128,837	26,942	133,729	65,989	36,691	49,494	51,218	492,900
		50.3%	49.7%	26.1%	5.5%	27.1%	13.4%	7.4%	10.0%	10.4%	100.0%
	4년제	96,193	111,548	52,252	10,258	60,006	35,664	24,097	10,008	15,456	207,741
		46.3%	53.7%	25.2%	4.9%	28.9%	17.2%	11.6%	4.8%	7.4%	100.0%
2009	2~3년제	147,580	135,090	67,521	17,007	79,235	31,566	13,162	38,484	35,695	282,670
		52.2%	47.8%	23.9%	6.0%	28.0%	11.2%	4.7%	13.6%	12.6%	100.0%
	4년제	243,773	246,638	119,773	27,265	139,241	67,230	37,259	48,492	51,151	490,411
		49.7%	50.3%	24.4%	5.6%	28.4%	13.7%	7.6%	9.9%	10.4%	100.0%
2010	2~3년제	86,424	111,199	45,819	9,805	61,531	33,519	24,746	8,541	13,662	197,623
		43.7%	56.3%	23.2%	5.0%	31.1%	17.0%	12.5%	4.3%	6.9%	100.0%
	4년제	145,865	130,360	64,832	16,452	78,175	31,326	12,799	37,087	35,554	276,225
		52.8%	47.2%	23.5%	6.0%	28.3%	11.3%	4.6%	13.4%	12.9%	100.0%
2011	2~3년제	232,289	241,559	110,651	26,257	139,706	64,845	37,545	45,628	49,216	473,848
		49.0%	51.0%	23.4%	5.5%	29.5%	13.7%	7.9%	9.6%	10.4%	100.0%
	4년제	79,744	108,376	41,225	9,286	59,403	32,235	24,968	8,002	13,001	188,120
		42.4%	57.6%	21.9%	4.9%	31.6%	17.1%	13.3%	4.3%	6.9%	100.0%
2012	2~3년제	144,444	132,038	65,463	16,665	78,697	30,889	13,596	36,011	35,161	276,482
		52.2%	47.8%	23.7%	6.0%	28.5%	11.2%	4.9%	13.0%	12.7%	100.0%
	4년제	224,188	240,414	106,688	25,951	138,100	63,124	38,564	44,013	48,162	464,602
		48.3%	51.7%	23.0%	5.6%	29.7%	13.6%	8.3%	9.5%	10.4%	100.0%
2013	2~3년제	80,294	105,000	41,525	9,297	56,770	31,231	25,620	7,497	13,354	185,294
		43.3%	56.7%	22.4%	5.0%	30.6%	16.9%	13.8%	4.0%	7.2%	100.0%
	4년제	149,261	136,863	69,151	16,305	82,639	31,837	14,157	36,481	35,554	286,124
		52.2%	47.8%	24.2%	5.7%	28.9%	11.1%	4.9%	12.8%	12.4%	100.0%
2014	2~3년제	229,555	241,863	110,676	25,602	139,409	63,068	39,777	43,978	48,908	471,418
		48.7%	51.3%	23.5%	5.4%	29.6%	13.4%	8.4%	9.3%	10.4%	100.0%
	4년제	80,444	107,979	41,165	9,478	58,069	31,826	26,886	7,544	13,455	188,423
		42.7%	57.3%	21.8%	5.0%	30.8%	16.9%	14.3%	4.0%	7.1%	100.0%
전체	2~3년제	162,269	146,969	77,293	15,395	90,503	34,453	16,254	38,452	36,888	309,238
		52.5%	47.5%	25.0%	5.0%	29.3%	11.1%	5.3%	12.4%	11.9%	100.0%
	4년제	242,713	254,948	118,458	24,873	148,572	66,279	43,140	45,996	50,343	497,661
		48.8%	51.2%	23.8%	5.0%	29.9%	13.3%	8.7%	9.2%	10.1%	100.0%
2015	2~3년제	77,206	106,472	39,995	9,598	55,172	31,219	27,376	7,124	13,194	183,678
		42.0%	58.0%	21.8%	5.2%	30.0%	17.0%	14.9%	3.9%	7.2%	100.0%
	4년제	158,111	144,921	75,920	15,198	88,049	34,055	15,844	37,462	36,504	303,032
		52.2%	47.8%	25.1%	5.0%	29.1%	11.2%	5.2%	12.4%	12.0%	100.0%
2016	2~3년제	235,317	251,393	115,915	24,796	143,221	65,274	43,220	44,586	49,698	486,710
		48.3%	51.7%	23.8%	5.1%	29.4%	13.4%	8.9%	9.2%	10.2%	100.0%
	4년제	77,489	104,789	40,633	9,611	52,770	31,047	28,586	6,100	13,531	182,278
		42.5%	57.5%	22.3%	5.3%	29.0%	17.0%	15.7%	3.3%	7.4%	100.0%
2017	2~3년제	157,713	149,643	74,957	15,308	88,527	35,304	17,810	37,935	37,515	307,356
		51.3%	48.7%	24.4%	5.0%	28.8%	11.5%	5.8%	12.3%	12.2%	100.0%
	4년제	236,578	257,746	115,590	29,609	141,297	66,351	46,396	44,035	51,046	494,324
		47.9%	52.1%	23.4%	6.0%	28.6%	13.4%	9.4%	8.9%	10.3%	100.0%
2018	2~3년제	680,844	867,354	362,273	77,914	461,835	263,437	206,157	65,212	111,371	1,548,199
		44.0%	56.0%	23.4%	5.0%	29.8%	17.0%	13.3%	4.2%	7.2%	100.0%
	4년제	1,210,360	1,108,625	564,315	128,691	661,440	258,723	116,435	301,010	288,371	2,318,985
		52.2%	47.8%	24.3%	5.5%	28.5%	11.2%	5.0%	13.0%	12.4%	100.0%
2019	전체	1,892,580	1,979,293	926,588	211,295	1,123,275	522,160	322,592	366,222	399,742	3,871,874
		48.9%	51.1%	23.9%	5.5%	29.0%	13.5%	8.3%	9.5%	10.3%	100.0%

전공계열 인적 구성의 변화는 2000년대 중후반 이공계 기피현상에 따른 4년제 공대생의 감소, 2010년대 들어 인문계열의 취업난 가속화 등이 일부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최근 교육 정책 변화에 따른 학과 조정의 효과는 향후 일자리 변화와 더불어 수년 내에 나타날 것이다(김형래, 천영민; 2016).

2. 선행 연구

신선미(2016)는 대학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서비스의 양적변화와 더불어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진로지도의 양적확대가 있었으며, 취업목표 설정에 있어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진로 교과목을 단독으로 수강하였거나 다른 취업지원 서비스와 같이 이용한 경우에 긍정적 효과가 컸지만, 진로지도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다른 서비스만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효과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진로지도 교과목의 필요성을 제시한 한미희(2011), 허은영(2009)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노경란, 박용호, 허선주(2011)는 대학에서 경험하는 취업 및 진로개발 서비스 참여 경험의 유익성이 취업, 고용형태, 일자리만족도 등의 취업성장에 정(+)의 효과를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프로그램 서비스의 다양성 측면은 오히려 취업성장에 부(-)의 효과를 준다고 밝혀 신선미(2016)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김병주와 서화정(2016)은 기존의 대학교육 만족도 연구(노경란, 박용호, 허선주, 2011; 정주영, 2013)를 바탕으로 인프라만족도와 과정만족도로 구분하여 개념화하였다. 자세히 보면 인프라만족도는 환경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만족도인 반면에 과정만족도는 전공, 교수진, 수업방식 등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로 파악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직무만족도에 직무일치를 매개호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 이 결과는 다른 연구와 사뭇 다른 것인데, 연구자는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제공이 오히려 효과를 낮춘 것으로 파악하였다.

허균(2016)은 대학의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개인수준과 대학수준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파악하였는데, 수준 주체에 따라 각 진로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에서 직장체험과 교내 취업박람회가 유의하였지만 대학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진로 관련 교과목 이수와 교내 취업박람회 참여가 임금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주는 데 반해 개인 및 집단 상담은 부(-)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도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천영민, 오민홍(2015)은 고졸자취업진로조사(HSGES; High School Graduates Employment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전공관련 방과후 학교 참여자의 취업성고가 높고, 특히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취업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배경 변인들 외에도 대학에서 제공되

는 다양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에 따른 취업성과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 입학 당시의 가구 배경, 대학 재학 중에 학업 및 취업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어떤 변인들이 졸업 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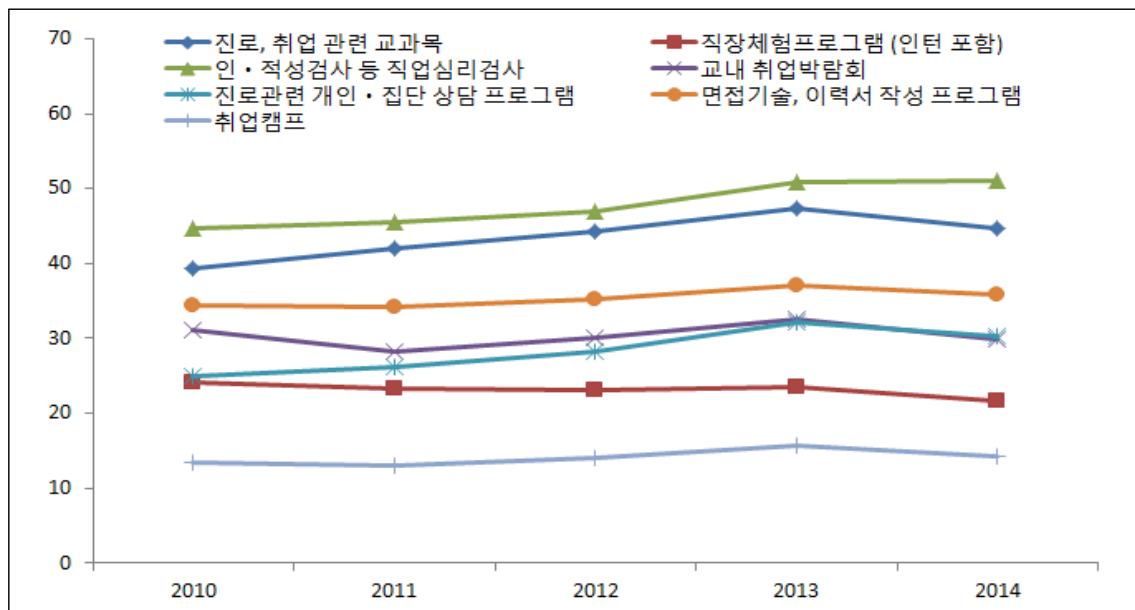
III 기초통계분석

1.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 현황

[그림 2]는 2010년 대졸자부터 2014년 대졸자까지 재학 당시 대학에서 참여한 진로관련 프로그램 참여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 추이

(단위 : %)



자료: GOMS 각년도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진로관련 프로그램 참여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만이 유일하게 20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에서 실시하는 인턴십 등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효과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더불어 직장체험 참여자의 효과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인턴십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현실에서 단순히 학점 취득을 위한 직장체험 프로그램만으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직업심리검사 참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진로 및 경력개발에 대한 긍정적 신

호가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파악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진로 관련 교과목이나 진로 관련 프로그램, 취업 포털 등에서 일부 요구하는 심리검사 결과 자료로 인해 부득이하게 관련 검사를 수검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진로 관련 프로그램은 201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4년 졸업자에서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취업 캠프 참여 비중이 모든 연도에서 10%대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 관련 각종 프로그램 참여 현황을 주요 변수별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2014년 대졸자들이 재학 중에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인·적성 검사 등 직업심리검사’로 51.9%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45.5%,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36.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취업 캠프’ 14.4%, ‘직장체험프로그램(인턴 포함)’ 22.0% 등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대학 재학 중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다소 많은 편이나, 적극적이고 취업에 대한 능동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다소 낮다는 것이다. 성별로 비교했을 때, ‘취업캠프’는 거의 비슷한 반면, ‘기업채용설명회’만 남성의 참여가 많을 뿐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여성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비교하면 4년제 졸업자가 2~3년제 졸업자에 비해 ‘인·적성 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교내 취업박람회’, ‘기업채용설명회’는 높았으나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은 오히려 2~3년제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 비교하면, 인문계열은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인·적성 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진로 관련 개인·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이 높은 편이었고, 공학계열은 ‘교내 취업박람회’,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기업채용설명회’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별 프로그램 참여율 비교

(단위 : %)

프로그램 참여 여부	성별		학교유형			전공계열							전체
	남자	여자	2~3년제	4년제	교육대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43.1	47.6	44.5	46.1	36.2	48.4	48.2	39.3	46.8	42.7	44.0	41.4	45.5
직장체험프로그램(인턴 포함)	21.1	23.0	21.5	22.2	29.3	18.5	20.6	24.0	25.1	22.0	23.9	19.8	22.0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47.5	56.0	48.5	53.6	63.9	56.3	54.3	57.3	49.8	51.1	51.6	46.2	51.9
교내 취업박람회	33.4	27.8	25.6	33.5	12.3	33.9	33.0	16.4	38.6	31.2	21.7	20.8	30.5
진로관련 개인·집단 상담 프로그램	28.6	33.0	32.0	30.3	29.2	34.6	32.1	29.5	30.8	26.7	32.4	28.8	30.9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33.7	39.1	41.9	33.6	29.9	37.0	40.1	34.4	37.4	32.2	36.5	31.7	36.5
취업캠프	14.4	14.5	16.2	13.7	1.8	15.6	16.3	9.1	16.1	13.3	13.8	10.6	14.4
기업채용설명회	31.2	24.4	21.5	31.4	5.9	28.4	29.8	9.8	39.1	28.2	16.9	18.0	27.7

자료: 2014GOMS

〈표 3〉과 〈표 4〉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른 대학 생활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 참여율을 비교한 것이다. 즉, ‘진로 및 취업 관련 교과목’ 이수 경험자 중에서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3.1인 반면에 미 경험자 중에서는 11.9%만이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에 대한 참여율은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과 ‘취업캠프’만이 미참여자의 경험률이 높을 뿐 다른 프로그램은 모두 참여자의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학 중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경험은 각종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률이 약간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학 중 취업 관련 각종 진로 프로그램 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휴학 경험’ 중에서 ‘교내 취업박람회’와 ‘기업채용설명회’ 참여자가 미참여자에 비해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졸업유예 경험’과 ‘재학 중 일을 한 경험’에서도 역시 각종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졸업 이전 취업목표 설정’과 ‘대학 입학 이후 취업준비 여부’ 역시 참여자의 경험률이 미참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각종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제적 고민과 더불어 취업을 하려는 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대학 생활중의 취업노력이 졸업 이후 실제 취업과의 연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표 3 학교생활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율 비교1

(단위 : %)

프로그램	참여	복수/부/연계전공 여부	재학 중 학자금대출 여부	생활비 대출 경험 유무	휴학 경험 유무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있음	13.1%	31.3%	12.4%	56.1%
	없음	11.9%	29.3%	9.7%	55.6%
직장체험프로그램 (인턴 포함)	있음	14.0%	30.6%	12.1%	56.4%
	없음	12.1%	30.1%	10.6%	55.7%
인·적성검사 등 직업 심리검사	있음	13.9%	31.5%	12.2%	55.7%
	없음	10.9%	28.8%	9.5%	56.0%
교내 취업박람회	있음	14.5%	30.9%	11.6%	63.5%
	없음	11.6%	29.9%	10.7%	52.5%
진로 관련 개인 및 집 단상담 프로그램	있음	13.1%	31.1%	12.5%	55.9%
	없음	12.2%	29.8%	10.2%	55.8%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있음	12.3%	32.0%	12.4%	54.7%
	없음	12.6%	29.1%	10.1%	56.5%
취업캠프	있음	12.4%	30.6%	12.3%	56.9%
	없음	12.5%	30.1%	10.7%	55.6%
기업채용설명회	있음	15.5%	31.3%	11.5%	67.0%
	없음	11.3%	29.8%	10.7%	51.6%

자료: 2014GOMS

표 4 학교생활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율 비교2

(단위 : %)

프로그램	참여	졸업유예 경험 유무	재학 중 일을 한 경험 유무	졸업 이전 취업목표 설정 여부	대학 입학 이후 취업준비 여부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있음	10.2%	64.7%	51.1%	64.2%
	없음	8.4%	57.8%	42.5%	50.8%
직장체험프로그램 (인턴 포함)	있음	11.1%	65.9%	53.2%	63.4%
	없음	8.7%	59.5%	44.5%	55.1%
인·적성검사 등 직업 심리검사	있음	10.3%	65.4%	50.3%	62.7%
	없음	8.0%	56.2%	42.3%	50.7%
교내 취업박람회	있음	13.5%	64.9%	50.4%	65.2%
	없음	7.3%	59.2%	44.7%	53.3%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있음	10.1%	65.4%	52.7%	64.2%
	없음	8.8%	59.0%	43.6%	53.7%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있음	10.1%	64.0%	50.6%	64.4%
	없음	8.7%	59.2%	44.0%	52.6%
취업캠프	있음	10.2%	64.1%	51.4%	63.3%
	없음	9.0%	60.4%	45.6%	55.8%
기업채용설명회	있음	14.6%	66.5%	53.7%	68.5%
	없음	7.1%	58.8%	43.7%	52.5%

자료: 2014GOMS

2.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와 성과

〈표 5〉는 2014년 대졸자의 재학 중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른 졸업 이전 취업목표 설정률, 취업목표로 설정했던 직업 달성률, 취업목표로 설정했던 직장 달성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교 졸업 이전 취업목표 설정률이 46.5%, 취업목표로 설정했던 직업을 달성한 비율이 45.1%, 취업목표로 설정했던 직장에 취업 성공한 비율이 47.9%인 가운데,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취업목표를 설정하는 비율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학습하기 때문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따라 취업목표로 설정했던 직업 달성여부와 취업목표로 설정했던 직장 달성여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직장체험 프로그램, 면접기술 및 이력서작성 프로그램 참여자는 직업과 직장 모두에서 참여자의 취업목표 달성 비율이 미참여자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교내 취업박람회와 기업채용설명회 참여자는 직업과 직장 모두에서 취업목표 달성 비율이 미참여자에 비해 낮았다. 한편 진로 및 취업 관련 교과목,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참여자의 직업 달성률은 낮은 반면 직장 달성률은 비슷하거나 높게 나타났다.

표 5 프로그램 참여와 취업목표 설정률 및 달성률 비교

(단위 : %)

프로그램 참여 여부	유무	졸업 이전 취업목표 설정률	취업목표(직업) 달성률	취업목표(직장) 달성률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있음	51.1	44.0	48.6
	없음	42.6	46.2	47.1
직장체험프로그램(인턴 포함)	있음	53.1	48.6	52.6
	없음	44.6	43.9	46.3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있음	50.3	43.5	47.8
	없음	42.3	47.1	48.0
교내 취업박람회	있음	50.4	41.6	47.4
	없음	44.7	46.8	48.1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있음	52.7	44.8	49.4
	없음	43.7	45.2	47.1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있음	50.6	45.3	50.3
	없음	44.1	44.9	46.3
취업캠프	있음	51.4	45.0	50.6
	없음	45.6	45.1	47.4
기업채용설명회	있음	53.7	41.5	47.3
	없음	43.7	46.8	48.1
전체		46.5	45.1	47.9

주: 취업목표 달성률에서는 미달성 뿐만 아니라 미설정도 제외(자료: 2014GOMS)

〈표 6〉은 대학 재학 당시 진로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취업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교내 취업박람회와 취업캠프의 경우에는 참여자 보다 미참여자의 일자리 보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프로그램은 모두 참여자의 일자리 보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참여자는 76.9%가 일자리를 보유한 반면, 미참여자는 73.3%만이 일자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3.6%p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현재 일자리 보유

(단위 : %)

프로그램종류	현재일자리 프로그램 참여여부	보유 비율		프로그램종류	현재일자리 프로그램 참여여부	보유 비율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75.7%	73.7%	진로관련 개인·집단 상담 프로그램		74.7%	74.5%
직장체험프로그램 (인턴 포함)		75.4%	74.4%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76.9%	73.3%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74.9%	74.2%	취업캠프		73.8%	74.7%
교내 취업박람회		74.0%	74.8%	기업채용설명회		75.6%	74.2%

자료: 2014GOMS

IV 모형 분석

1. 변수 설정

2014GOMS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이용해 대졸자들이 졸업 이후 조사 시점에 일자리 보유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한 변수 설정은 <표 7>과 같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변수는 “현재 일자리 취업여부”(occupied)로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모두 세 가지 상위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 및 학교 배경 요인, 가구 배경 요인, 학교 배경 요인,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 요인이다.

먼저, 개인 및 가구 배경 요인은 성별, 학교 유형, 전공계열, 출신대학 권역, 연령, 입학 당시 부모 소득, 부의 학력 등 7개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각 하위 변수에 대한 값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gender)은 여성을 ‘0’, 남성을 ‘1’로 설정하였고, 학교 유형은 2~3년제를 ‘0’, 4년제를 ‘1’로 하였다⁴⁾. 전공계열(major)은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등 7개 계열을 1부터 7까지의 값을 부여하여 인문계열이 기준집단이 되도록 설정하였는데, 실제 분석에서는 6개의 가변수(dummy variable)가 투입되어 사용되었다. 출신대학 권역(province) 변수는 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5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권을 기준집단이 되도록 설정하여, 실제 분석에서는 4개의 가변수가 사용되었다. 입학당시 부모님 월평균소득(income_h) 변수는 소득없음 또는 부재는 ‘0’을 다른 집단은 1부터 8까지의 값을 부여하였다. 부의학력(edu_f) 변수는 무학부터 대학원졸까지 1~7의 값을 부여하였고, 무학을 기준집단이 되도록 사용하였다.

학교 배경 요인은 복수전공 여부, 대학만족도, 전공만족도, 학점, 졸업유예여부, 재학 중 일경험, 졸업 전 취업목표 여부, 졸업전 유보임금, 재학시 취업준비 등 9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복수전공 여부(dual)는 복수전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0’, 했을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하였고, 대학만족도(sa_univ)와 전공만족도(sa_maj)는 리커트 5점척도로 된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학점(score)은 졸업 평점에 대해 100점으로 환산한 값⁵⁾을 사용하였다. 졸업유예 여부⁶⁾(delay)는 없으면 ‘0’, 있으면 ‘1’로 설정하였다. 재학 중 일경험(underjob)은 없으면 ‘0’, 있으면 ‘1’로 설정하였고, 졸업 전 취업목표 여부(goal)는 대학 졸업 이전에 설정했던 취업목표⁷⁾가 없으면 ‘0’, 있으면 ‘1’로 설정하였다. 졸업 전 유보임금⁸⁾(reservation)은 응답값을 그대

4) 교육대는 분석에서 제외

5) 졸업 평점은 4.0, 4.3, 4.5점 중 해당되는 만점기준으로 응답된 값을 100점이 만점되도록 환산하여 사용

6) 졸업 시점을 늦추기 위한 방법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졸업유예 제도를 신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졸업에 필요한 조건을 의도적으로 채우지 않은 경우(졸업논문 미제출, 졸업시험 미응시, 필수과목 미이수 등)도 해당

7)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희망한 미래의 일자리 또는 직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희망에 그친 것이 아니라 목표에 대한 정보탐색 이상의 최소한의 노력을 한 경우를 말함

로 사용하였으며, 재학시 취업준비(job_univ)는 없으면 '0', 있으면 '1'로 설정하였다.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 요인에 속하는 변수는 진로/ 취업 과목(course), 직장체험프로그램(experience), 직업심리검사(test), 교내 취업박람회(fair), 진로관련 상담 프로그램(counsel), 면접기술/이력서 작성(technique), 취업캠프(camp), 기업채용설명회(brief) 등 8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련 경험이 없으면 '0', 있으면 '1'로 설정하였다.

표 7 사용된 변수 설명

종속변수	변 수	변수명	변수의 값 설명
개인 및 가구 배경	현재 일자리 보유	occupied	아니오=0, 네=1
	성별	sex	여성=0, 남성=1
	학교 유형	school	4년제=1, 2~3년제=0
	전공계열	major	인문=1, 사회=2, 교육=3, 공학=4, 자연=5, 예체능=6
	출신대학권역	province	서울:1, 경인:2, 충청:3, 영남:4, 호남:5
	연령	age	35세 미만
	입학 당시 부모소득	income_h	소득없음 또는 부재:0, 100만 미만=1, 200만 미만=2, 300만 미만=3, 400만 미만=4, 500만 미만=5, 700만 미만=6, 1,000만 미만=7, 1,000만 이상=8
학교 배경	부의 학력	edu_f	무학=1, 초졸=2, 중졸=3, 고졸=4, 초대졸=5, 대졸=6, 대학원졸=7
	복수전공여부	dual	안함=0, 함=1
	대학 만족도	sa_univ	매우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전공 만족도	sa_maj	매우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학점	score	100점 환산값
	졸업유예여부	delay	없음=0, 있음=1
	재학중 일경험	underjob	없음=0, 있음=1
	졸업전 취업목표	goal	없음=0, 있음=1
	졸업전 유보임금	reservation	졸업 전에 생각한 첫 일자리 임금
진로 관련 프로 그램 참여	재학시 취업준비	job_univ	없음=0, 있음=1
	진로, 취업 과목	course	안함=0, 함=1
	직장체험프로그램	experience	안함=0, 함=1
	직업심리검사	test	안함=0, 함=1
	교내 취업박람회	fair	안함=0, 함=1
	진로관련 상담 프로그램	counsel	안함=0, 함=1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technique	안함=0, 함=1
	취업캠프	camp	안함=0, 함=1
	기업채용설명회	brief	안함=0, 함=1

2. 로짓모형 분석 결과

대졸자들이 졸업 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찾기 위해 로짓 모형을 적용한 결과는 <표 8>이다. <표 8>은 세 가지 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형 I은 개인 및 가구배경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만을 투입하여 현재일자리 취업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을 분석한 것이다. 즉, 모형 I은 취업노력을 포함시키지 않고 개인과 가구의 영향에 의해 취업여부가 어떻

8)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 응답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연봉임. 창업 또는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최저 연평균 순수입을 기준으로 응답

게 결정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모형 II는 모형 I에 추가적으로 학교생활과 관련된 변수들을 투입하여 분석한 것이고, 모형 III은 모형 II에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대학교의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가 일자리를 갖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한 것이다.

모형 I에서 유의했던 변수들은 모형 II와 모형 III에서, 모형 II에서 유의했던 변수들은 모형 III에서 모두 유의할 뿐만 아니라 방향성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 III을 중심으로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배경과 가구배경을 이용한 변수들의 영향과 관련하여, 성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상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가능성이 높은데, 본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형 I은 ‘+’이었다가 모형 II와 모형 III에서는 ‘-’로 부호가 바뀐 부분을 볼 때,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⁹⁾. 학교유형에서는 전문대가 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계열에서는 인문계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연계열만 유의한 차이가 없을 뿐,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모두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소재지와 관련하여 서울권 출신에 비해 충청권만이 유의하게 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경기, 경상, 전라권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5세 미만으로 한정했음에도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학 당시 부모소득은 자녀의 취업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부의 학력은 휘귀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학력증가와 더불어 2차 효과(오목효과, concave effect)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배경과 관련하여, 복수/부/연계전공, 대학만족도, 전공만족도, 학점, 취업목표설정 등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졸업유예 경험에 있거나, 재학 중에 일경험이 있거나, 재학 당시 취업준비 경험이 있거나, 유보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소극적인 취업준비 보다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취업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하여, 진로 및 취업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졸자가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진로 관련 상담프로그램 경험이 있거나 취업캠프에 참여한 대졸자가 취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 직장체험프로그램, 직업심리검사, 교내 취업박람회, 기업 채용설명회는 일자리 보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이용자가 많은 진로 관련 교과목은 최근 많은 대학에서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와 직업’, ‘직업선택과 취업준비’, ‘리더십과 진로개발’ 등의 이름으로 개설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런 교과목 이수에는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권장되고 있다. 이전에는 주로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 운영되었지만 최근에는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전공과목으로 개설되기도 한다.

9) 물론 어떤 유의수준에서도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하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표 8 로짓모형 분석 결과-현재 일자리 보유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	S.E.	Sig	Exp(B)	B	S.E.	Sig	Exp(B)	B	S.E.	Sig	Exp(B)
sex(여성)	.032	.047	.491	1.033	-.035	.048	.466	.965	-.042	.048	.384	.959
school(전문대)	-.350	.052	.000	.705	-.372	.053	.000	.689	-.359	.054	.000	.698
major(인문)			.000				.000				.000	
사회	.293	.067	.000	1.340	.296	.068	.000	1.344	.283	.068	.000	1.327
교육	.317	.093	.001	1.374	.327	.094	.000	1.387	.337	.094	.000	1.401
공학	.325	.065	.000	1.384	.366	.067	.000	1.442	.349	.067	.000	1.418
자연	-.013	.068	.845	.987	.037	.069	.599	1.037	.033	.070	.636	1.034
의약	1.025	.103	.000	2.788	1.111	.105	.000	3.038	1.111	.106	.000	3.039
예체능	.356	.074	.000	1.427	.420	.075	.000	1.522	.421	.076	.000	1.523
province(서울)			.097				.112				.181	
경기	.099	.056	.075	1.105	.103	.057	.070	1.108	.098	.057	.084	1.103
충청	.119	.060	.047	1.126	.137	.061	.024	1.147	.134	.061	.027	1.144
경상	.010	.054	.855	1.010	.037	.055	.506	1.037	.048	.056	.391	1.049
전라	-.006	.070	.926	.994	.015	.071	.834	1.015	.031	.071	.665	1.031
age	.099	.012	.000	1.105	.090	.012	.000	1.094	.091	.012	.000	1.095
입학시부모소득(부재)			.925				.905				.914	
100만 미만	.056	.196	.774	1.058	.051	.197	.798	1.052	.058	.197	.770	1.059
200만 미만	-.230	.188	.220	.795	-.240	.188	.203	.787	-.234	.189	.214	.791
300만 미만	-.093	.114	.414	.911	-.123	.115	.286	.885	-.125	.115	.279	.883
400만 미만	-.026	.103	.803	.975	-.057	.104	.584	.945	-.063	.104	.545	.939
500만 미만	-.041	.100	.677	.959	-.060	.100	.548	.942	-.070	.100	.484	.932
700만 미만	-.062	.098	.526	.940	-.081	.098	.413	.923	-.086	.099	.386	.918
1,000만 미만	-.033	.104	.749	.967	-.055	.104	.597	.946	-.063	.105	.545	.939
1,000만 이상	-.089	.118	.451	.915	-.114	.118	.334	.892	-.119	.118	.315	.888
부의학력(무학)			.000				.000				.000	
초졸	.285	.456	.533	1.329	.245	.456	.590	1.278	.202	.456	.658	1.224
중졸	.303	.124	.014	1.354	.292	.124	.019	1.339	.273	.124	.028	1.314
고졸	.467	.101	.000	1.595	.451	.101	.000	1.570	.450	.102	.000	1.569
전문대졸	.386	.073	.000	1.471	.385	.074	.000	1.469	.370	.074	.000	1.448
대학졸	.326	.105	.002	1.385	.317	.105	.003	1.373	.304	.105	.004	1.355
대학원졸	.277	.073	.000	1.319	.276	.073	.000	1.318	.266	.073	.000	1.305
복수/부/연계전공					.089	.056	.111	1.093	.091	.056	.104	1.095
대학만족도					.037	.028	.186	1.038	.041	.028	.145	1.042
전공만족도					-.015	.028	.592	.985	-.017	.028	.549	.983
학점					.002	.002	.255	1.002	.002	.002	.253	1.002
졸업유예여부					.186	.067	.005	1.204	.179	.067	.007	1.196
재학중일경험					.167	.039	.000	1.182	.166	.039	.000	1.180
취업목표설정					.055	.039	.159	1.057	.050	.039	.200	1.052
졸업전유보임금					.000	.000	.007	1.000	.000	.000	.011	1.000
재학시취업준비					.156	.039	.000	1.169	.137	.040	.001	1.147
진로, 취업 과목									.102	.044	.022	1.108
직장체험프로그램									.019	.048	.683	1.020
직업심리검사									-.047	.043	.284	.955
교내 취업박람회									-.060	.047	.201	.942
진로관련 상담 프로그램									-.147	.047	.002	.863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255	.047	.000	1.291
취업캠프									-.123	.058	.033	.884
기업채용설명회									.067	.049	.172	1.069
상수항	-1.895	.331	.000	.150	-1.989	.394	.000	.137	-2.047	.395	.000	.129
chi square				347.84				428.06				476.7
-2LL				17760.43				17680.21				17631.57
r square				0.032				0.039				0.044
classification				73.3				73.4				73.4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가 노동시장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연도별 문항간 불일치와 설문구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하였고, 이를 사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진로 관련 교과목에 대한 참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대졸자의 절반 정도가 관련 교과목을 1번 이상 수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다른 프로그램들은 절반을 훨씬 밑도는 숫자의 학생들이 참여한 경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4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대학 재학 당시에 수많은 학생들은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가 미참여자에 비해 대출경험이 좀 더 많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 취업준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가 졸업 이후 일자리를 갖는 데 있어 재학 시절에 더 많은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났는데, 교내 취업박람회와 취업캠프의 경우에는 미참여자가 취업 가능성이 높고, 다른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취업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참여자는 76.9%로 다른 프로그램 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미참여자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로짓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에 따르면, 진로 및 취업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졸자가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진로 관련 상담프로그램 경험이 있거나 취업캠프에 참여한 대졸자가 취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직장체험프로그램, 직업심리검사, 교내 취업박람회, 기업채용설명회는 일자리 보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2학년과 같은 저학년에 진로 관련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본인의 졸업 후 진로를 미리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까지는 성적에 맞추어 진학하거나 막연한 지적 호기심으로 입학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입직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외연을 확장하거나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해 본인의 진로를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학년에는 진로 관련 교과목을 통해 취업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지적호기심을 채우고 본인의 경력을 설계해 갈 수 있는 로드맵을 그려보는 것은 중요하다. 대학에서도 관련 교과목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커리큘럼에 포함하되, 단순한 교양과목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전공에 맞춘 세부적인 과목 운영이

가능한 형태의 교과목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졸업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학생들은 시급한 취업 기술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를 위한 취업컨설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편 취업박람회나 채용 설명회가 학생들에게 효과를 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단순한 회사 홍보 측면이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시도들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취업과 바로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실제 사례들이 학생들에게 홍보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기업의 현장 방문이나 채용 설명회는 수도권 주요 대학이나 지방 거점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가 여러 차례 변경을 통해 설문 방식과 조사설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연도별 문항간 불일치 문제로 인해 효과적인 비교가 어려웠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진로 관련 프로그램 중에서 기업채용설명회는 2014년 조사에 처음 시도되었고, 진로 및 취업관련 교과목 이수 2008년부터 설문에 포함되었다. 또한 현재의 설문 배치는 2010년부터 안정화가 된 것 같은 형태를 보여주었는데, 관련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묻고 참여자에 한해 만족도와 효과를 묻고 있다. 그러나 중간에 한 프로그램씩 참여여부, 효과, 만족도를 묻는 방식을 로테이션식으로 묻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 문항간 비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2013년까지 도움정도를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이진값으로 물었다가 2014년부터는 5점 척도로 묻고 있다. 이런 설문 문항 구조 변경은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05년 장기추적 형태에서 2007년 단기추적 형태로 변경되었다가 2011년부터 횡단면조사 형태로 고착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코호트에 대한 안정적 운영과 장기추적이 답는 동적(dynamic) 해석이 용이한 형태로 운용되기 보다는 연도별 비교가 용이한 형태로 설계하고 이를 쉽게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청년 실업 문제와 더불어 고학력자의 취업난 등 현실적으로 대졸 청년층이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에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통계를 산출해서 제공할 수 있는 통계로서 그 본연의 가치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 고 · 문 · 헌

- [1] 김병주, 서화정(2016). 대학교육 만족도와 취업준비프로그램이 취업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 모형 분석, 2016 고용패널학술대회, 145-164, 한국고용정보원.
- [2] 김종성, 이병훈(2014).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동향과 전망, pp. 296-330.
- [3] 김형래, 천영민(2016). 대졸자의 재학 중 학교생활과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 변화, 2016 고용패널 학술대회, 120-144, 한국고용정보원.
- [4] 노경란, 박용호, 최선주(2011). 대학 재학 중 취업 및 진로개발 서비스 참여 경험이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취업여부, 고용형태, 일자리 만족도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9(1), 63-92.
- [5] 박가열, 천영민(2016). 대졸자 관점은 일자리 취업 영향 요인 분석: 본인 노력 대 가계 배경을 중심으로, 2016 고용패널학술대회, 307-331, 한국고용정보원.
- [6] 신선미(2016). 대학이 제공하는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서비스의 교육적 효과, 2016 고용패널학술대회, 45-71, 한국고용정보원.
- [7] 신종각, 이성재, 이지민, 박선연(2015). 2013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8] 천영민, 박가열(2016). 취업성과, 개인의 성취인가? 가계의 계승인가?, Proceedings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April 22-23, 2016, pp. 167-172.
- [9] 천영민, 오민홍(2015). 특성화고 졸업자의 재학 중 취업노력 및 취업지원이 실제 취업에 미치는 영향, 질서경제저널, 18(2), 39-60.
- [10] 최기성, 신종각, 이성재, 이주현(2016). 2014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11] 한미희(2011). 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교과목의 개발 및 효과, 진로교육연구, 24(2), 95-113.
- [12] 허균(2016). 다층분석을 통한 대졸자 노동시장 성과 영향 요인 탐색 - 대학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중심으로, 2016 고용패널학술대회, 256-267, 한국고용정보원.
- [13] 허은영(2009). 대학생 대상 진로지도 교과목 운영의 효과, 직업교육연구, 28(4), 77-94.